51개 대학서 신입생 2008명 끝내 못 채워

지난주, 오늘까지 입학할 신입생 추가모집
마지막날인 29일 오전에도 정원 못 채워 공시
"지원 너무 적어 차마 모집 못한 지방대 있다"
서울 정시 미달 668명, 추가모집 때 모두 충원
"대입 막차" 경쟁률 700대 1 넘어 지방과 대조

학령인구 절벽 속 대학 51개교가 올해 신입생 모집 막바지까지 정원 2000여명을 채우지 못했다. 채우지 못한 정원의 98%가 지방대 몫이었다.

3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대입 추가모집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 모집을 이어가던 대학들을 세 본 결과, 51개교에서 총 2008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 중 지방대가 43개교이며, 98%인 1968명을 채우지 못했다.

대입 추가모집은 수시와 정시를 다 마치고도 채우지 못한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위해 이뤄진다. 합격한 대학이 없는 수험생들에겐 마지막 대입 기회이고, 학령인구 절벽 속 지방대 입장에선 사활을 건 시간이다.

전남 지역 대학 2개교는 대입 마지막 날 아침까지 307명을 못 뽑았다. 학교 1곳당 153.5명 꼴이다.

지역별 학교당 평균 미달인원은 ▲전북 77.7명 ▲광주 71.0명 ▲경남 50.0명 ▲부산 40.0명 ▲강원 44.7명 ▲충남 34.8명 ▲충북 34.3명 ▲경북 34.0명 ▲대전 19.8명 ▲대구 7.0명 ▲제주 4.0명 등의 순서였다.

수도권에선 경기 지역 대학 8개교에서 총 40명을 못 채웠지만 1곳 당 5명 꼴이란 점에서 비교적 양호했다.

서울·인천과 서울 주요 대학의 캠퍼스가 많은 세종, 그리고 울산 지역 대학들은 추가모집 대학이 없었다. 모두 정원을 이미 다 채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지역 지방대 중에서는 대입 마지막날 오전까지 선발 중인 정원을 공시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나쁜 대학이 많다는 것이 종로학원 측 전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공시하지 않은 대학 중에선 정원을 상당히 많이 못 채운 곳도 있을 것"이라며 "2월22일부터 추가모집이 시작됐지만 지원자가 극히 적어 공시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서울 지역 대학은 추가모집 초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며 지방대가 처한 현실과 대조를 나타냈다.

서울시립대(4명) 349.5대 1을 필두로 한국외대(5명) 244.6대 1, 숙명여대(7명) 214.9대 1, 건국대(18명) 202.8대 1, 상명대(5명) 195.6대 1 등 순이었다.

문과 모집단위 중에선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706대 1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상명대 경영학부 460대 1, 건국대 부동산학과 400대 1, 중앙대 역사학과 385대 1 등 순을 기록했다. 모두 1명 씩을 뽑았다.

이과는 건국대 생물공학과가 494대 1로 가장 치열했고, 서울시립대 3개 학과가 뒤이었다.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459대 1, 컴퓨터과학부 445대 1, 화학공학과 438대 1 순이다. 모두 1명씩 추가 모집이 진행됐다.

올해 정시모집 종료 당시 서울 지역 대학 32개교에서 668명을 뽑지 못해 추가모집이 실시됐으나,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전에 예상대로 모든 자리가 채워졌다. 지원자는 도합 6만1834명으로 평균 92.6대 1이었다.

김희면기자

"엄마 아파트 아냐"…'상속세 폭탄'에 소송냈지만 패소

모친 사망 전 3억3000만원가량 상속 받아

모친이 사망하기 전 3억원대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를 모친에게 명의신탁했을 뿐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대금의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 무승계 계약서를 작성, 자신의 모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는 4년 뒤인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약 3억7500만원의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그는 이 금액과 본래 갖고 있던 현금을 수표 등으로 출금해 A씨와 그 자녀에게 3억3640만원을 입금했다. 또 세입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5000만원 상당의 수표로 받아 이 역시 함께 자녀에게 전달됐다.

이후 2019년 B씨가 사망한 뒤 A씨는 상속세 1746만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안양세무서는 A씨 등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수표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안양세무서 측은 상속세 8299만원과 가산세 2686만원을 고지했다. 동작세무서도 같은 날 증여세와 가산세 총 135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10월 기각된 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했을 뿐 모친이 실제 소유자는 아니다"라며 "따라서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은 B씨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A씨)는 고령의 모친인 피상속인을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이 인출돼 그 중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가 A씨의 재산임에도 매매대금이 자신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입금된 점을 A씨가 해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한편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오유나기자

푸바오, 중국행 앞두고 마지막 인사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지난 2020년 7월 국내에서 처음 태어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 온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오는 4월 중국 이동을 앞두고 관람객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고 3일 밝혔다. 에버랜드는 사육사들의 정성을 듬뿍 담아 준비한 하트 모양 워토우(영양빵) 케이크와 푸바오가 가장 좋아하는 대나무, 당근을 특별 선물로 제공하며 이 날을 기념했다.

불타는 차량과 여러개 부탄가스 남긴 채 도주…20대 운전자 구속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인천에서 불타는 차량과 여러 개의 부탄가스캔만 남긴 채 도주했던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김지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17분께 서구 가좌동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측도에서 흡입 목적으로 휴대용 부탄가스캔을 차량 내에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부탄가스캔이 폭발하면서 승용차에 불이 붙자 측도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해당 차량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현장 인근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캔 7개가 발견됐다.

운전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다음날 오전 2시 15분께 서구 한 사우나에서 10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불이 난 차량의 소유주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화재 당일 소방대원 등 인력 15명과 장비 5대를 동원해 1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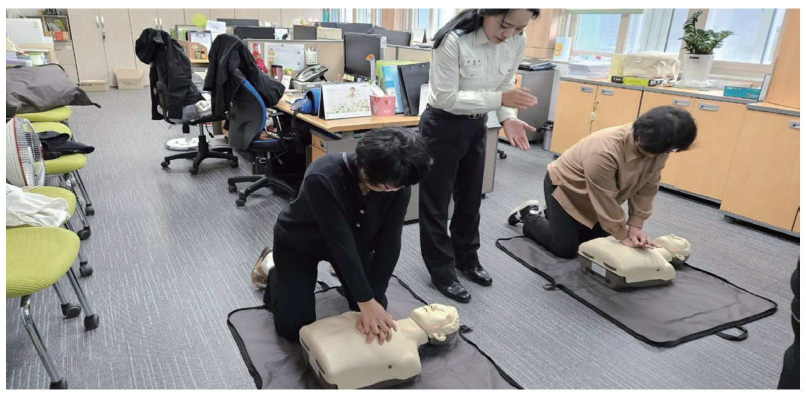
광주 동부소방, 주택홍보관 활용한 공동주택 피난행동요령 교육

광주 동부 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최근 동구 관내 위치한 분양이 끝난 주택홍보관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대상으로 화재 피난행동요령(대피)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장흥경찰, 2024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장흥경찰서(서장 신행회)는 최근 장흥경찰서 장원마루에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2024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장흥=김도영기자



곡성소방, 디지털 소외계층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이 힘든 디지털 소외계층(고령층, 장애인 등)에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곡성=양해영기자

구례소방, 관계인 자율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현장 지도

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22일 관계인 자율안전의식 개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구례군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관서장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소방, 창평시장 맞춤형 소방안전관리 및 화재대응훈련

담양소방서 (서장 윤예심)는 최근 겨울철 맞춤형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창평시장에서 가상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강진소방, 축사 소방안전관리자 소집교육 실시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축사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최근 강진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소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